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8월 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과장(02-2110-5481), 진성규 주무관(5439)		

"홍석우 지경부 장관, 교사들과 진솔한 소통"
– 에너지와 원자력 소통마당 개최 –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8.8일 동작구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초중등 교사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'에너지와 원자력 소통마당'을 개최하였음

< 행사 개요 >

○ 일　　시 : '12.8.8(수) 10:10~11:40

○ 장　　소 :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서울 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

○ 참　　석 : 홍석우 지경부 장관, 교사 140여명 등

○ 주요내용 : 에너지와 원자력정책, 에너지 절약 관련 강의 및 소통

□ 이번 소통마당에서는 에너지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교사들과 소통함으로써

○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인 에너지와 원자력,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음

□ 이번 소통마당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을 비롯,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전반에 걸친 폭넓은 주제가 다루어졌으며,

○ ①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는 생계형 서민이라는 점, ② 전력공급에 있어 '외딴섬'인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점, ③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신성장동력이라는 점, ④ 학교와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 국민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

□ 아울러 홍석우 장관은 교사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소개하였음

○ 첫째, 공급측면(에너지 믹스)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일 계획으로,

- 미래에너지로의 성장가능성과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('11년 관련 예산 1조 34억원)하는 한편,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로,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

- 다만,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아직은 자연환경과 국토여건 상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경쟁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설명

- 또한 MS 빌게이츠 회장의 말을 인용*하면서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대용량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

* (빌게이츠 회장) "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원자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.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원자력 발전은 다른 에너지보다 오히려 안전하다"

○ 둘째, 수요측면에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강력한 수요관리와 절약을 통해 '30년까지 에너지 사용 효율을 46%까지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면서,

- 제5의 에너지*라 불리는 '에너지 절약'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직장 및 가정에서 교사들의 에너지 절약 노력

  * 불, 석유, 원자력,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절약

- 특히 '전력 보릿고개'가 예상되는 금년 여름철 전기 절약을 위해 "아싸가~자!"*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발전소 건설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

  * **아**(끼자 '25시') **싸**(랑한다 '26도') **가**(볍다 '시원차림') **자**(~뽑자 '플러그')

□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"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상황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"며, 에너지의 소중함을 실감하고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

○ 특히 학교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주위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야겠다는 소감을 피력

□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해 교사, 주부, 학생 등과의 다각적인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짐으로써 신뢰를 통한 열린 에너지와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